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9년 5월 4일

교사 : 김은아

- 목표 :
1. 지난 시간 수업내용을 쪽지시험을 통해 복습할 수 있다.
 2. <홍길동전>에 대해 알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3. SAT 문법 문제를 통해 문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4. 자주 사용되는 한자에 대해 알 수 있다.
 5. 관용어의 쓰임을 알 수 있다.
 6. <정약용과 실학>에 대한 읽을 자료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교재 : 네이버 초등 백과사전, 7급 한자교재,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SAT KOREAN

교 시	수업 내용
1교시 9:30-10:15	숙제 검사 및 쪽지시험
2교시 10:15-11:00	<홍길동전>을 읽으며 조선후기 사회의 모습 이해
점심 11:00-11:20	
3교시 11:20-12:00	SAT 문법 문제(9과) 풀기
4교시 12:00-12:40	줌바수업
숙제	1. 한자 2. 관용어 3. 읽기자료 4. 어휘

오늘 바자회에 수고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25일은 눈으로 수업을 못했던 3월 2일 수업 보충일로 정상수업입니다.

<어휘>

1. 적자 : 정실이 낳은 아들.
2. 호부호형 :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兄)을 형(兄)이라고 부름
3. 흉계 : 흉악한 계략. [유의어] 꿈꾸이, 읊모4, 솔센
4. 우두머리 : 어떤 일이나 단체에서 으뜸인 사람.
5. 횡포 : 제멋대로 굴며 몹시 난폭함.

7급 제3회 기출 및 예상문제

1

다음 밑줄 친 漢字語(한자어)의 음(음 : 소리)을 쓰세요.

보기

漢字 → 한자

- (1) 市民은 민주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
- (2) 지하철 入口로 들어갔습니다. ()
- (3) 우리 집의 교훈은 正直과 성실입니다. ()
- (4) 어머니가 학교 正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
- (5) 外出 준비를 하였습니다. ()
- (6) 편지에 발신인의 住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 (7) 名山을 둘러보았습니다. ()
- (8) 여기에 姓名을 적으세요. ()
- (9) 四方이 적들로 둘러싸였습니다. ()
- (10) 인류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점 중 하나가 直立한다는 것입니다. ()

월 일

이름

확인

2 다음 漢字(한자)의 訓(훈 : 뜻)과 音(음 : 소리)을 쓰세요.

보기

字 → 글자 자

- | | |
|-----------|------------|
| (1) 出 () | (2) 直 () |
| (3) 所 () | (4) 住 () |
| (5) 正 () | (6) 市 () |
| (7) 方 () | (8) 姓 () |
| (9) 名 () | (10) 入 () |

3 다음 밑줄 친 단어의 漢字語(한자어)를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쓰세요.

보기

① 名所 ② 入學 ③ 地方 ④ 住民

- | |
|---|
| (1) 우리 시에는 많은 <u>주민</u> 이 살고 있습니다. () |
| (2) 자기 고장의 <u>명소</u> 를 소개하는 책자를 썼습니다. () |
| (3) 그는 <u>지방</u> 에서 올라왔습니다. () |
| (4) <u>입학</u> 선물로 가방을 받았습니다. () |



7급 제3회 기출 및 예상문제

- 4 다음 訓(훈 : 뜻)과 音(음 : 소리)에 맞는 漢字(한자)를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쓰세요.

보기

- | | | | | |
|-----|-----|-----|-----|-----|
| ① 出 | ② 市 | ③ 所 | ④ 正 | ⑤ 住 |
| ⑥ 入 | ⑦ 姓 | ⑧ 名 | ⑨ 直 | ⑩ 方 |

- | | |
|--------------|---------------|
| (1) 바를 정 () | (2) 모 방 () |
| (3) 날 출 () | (4) 살 주 () |
| (5) 저자 시 () | (6) 곧을 직 () |
| (7) 바 소 () | (8) 들 입 () |
| (9) 성 성 () | (10) 이름 명 () |

- 5 다음 밑줄 친 구절의 뜻에 가장 가까운 漢字語(한자어)를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쓰세요.

보기

- | | | | |
|------|------|------|------|
| ① 内面 | ② 入室 | ③ 名門 | ④ 同姓 |
|------|------|------|------|

- | |
|------------------------------------|
| (1) 그는 <u>이름난 집안</u> 의 장손입니다. () |
| (2) <u>방에 들어가기 전에</u> 신발을 벗어라. () |

월 일

이름

확인

- 6 다음 漢字(한자)의 상대 또는 반대되는 漢字(한자)를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쓰세요.

보기

① 外

② 入

③ 正

④ 方

(1) 出 ↔ ()

(2) 內 ↔ ()

- 7 다음 漢字語(한자어)의 뜻을 쓰세요.

(1) 住民 ()

(2) 所有 ()

- 8 다음 漢字(한자)의 진하게 표시한 획은 몇 번째 쓰는지 **보기**에서 찾아 그 번호를 쓰세요.

보기

- ① 첫 번째
- ② 두 번째
- ③ 세 번째
- ④ 네 번째
- ⑤ 다섯 번째
- ⑥ 여섯 번째
- ⑦ 일곱 번째
- ⑧ 여덟 번째
- ⑨ 아홉 번째
- ⑩ 열 번째

(1)

出

()

(2)

市

()



8급 한자 복습

월 일
이름

확인

◆ 흐린 한자를 필순에 맞게 쓰고, 빈칸에 훈(뜻)과 음(소리)을 쓰세요.

1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는 南大門입니다.

훈 음

2 백두산은 北韓에 있습니다.

훈 음

3 그는 장래가 유망한 青年입니다.

훈 음

4 운동회 때 白軍 대표로 뽑혔습니다.

훈 음

5 우리 父母님은 자상하십니다.

훈 음

6 母女가 매우 닮았습니다.

훈 음

7 學父兄이 되었습니다.

훈 음

8 그 兄弟는 우애가 넘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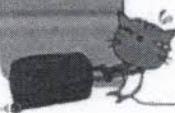
훈 음

9 그는 萬人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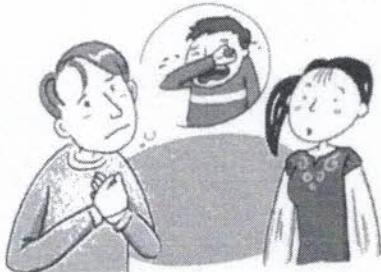
훈 음

10 새로 女先生님이 오셨습니다.

훈 음


대화

나 때문에 동생이
야단을 맞는데 가슴이
뜨끔했어요.



동생한테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사코 : 어머, 에릭 씨 가족사진인가 봐요. 옆에서 있는 이 사람은 동생인가요?
 에 릭 : 네, 내 동생이에요. 지금 영국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어요.
 아사코 : 그래요? 이렇게 멋진 동생이 있어서 에릭 씨는 좋겠어요. 늘 동생을 챙기는 에릭 씨를 보면 나는 괜히 내 동생에게 미안해요.
 에 릵 : 나도 어릴 때는 장난이 심해서 이유 없이 동생을 많이 괴롭혔어요.
 아사코 : 그랬어요? 어릴 때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에 릵 : 지금 생각해 보면 동생한테 잘못한 일이 많았어요. 언젠가 내가 아버지께서 아끼시던 도자기를 실수로 깨뜨렸는데 야단맞을까 봐 동생이 했다고 거짓말했어요.
 아사코 :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에 릵 : 아버지께서 화기 많이 나셔서 동생을 심하게 야단치셨어요. 동생이 밤새도록 우는데 정말 가슴이 뜨끔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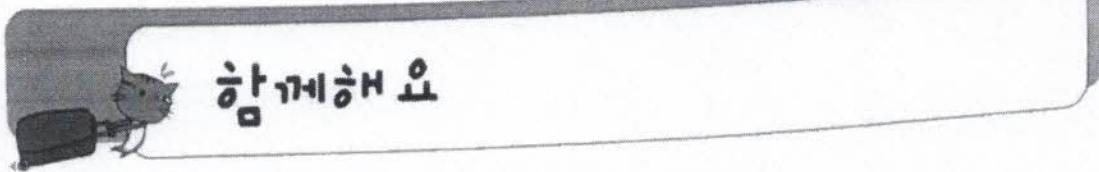
* 가슴이 뜨끔하다: 나쁜 일이나 비밀을 들켰을 때 미안함을 느끼다

활용예문

- ▶ 왜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았느냐는 질문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 ▶ 착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했다.
- ▶ 가: 운전하다가 경찰이 보이면 괜히 가슴이 뜨끔해.
 나: 맞아,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럴 때가 있어.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건축가 | <input type="checkbox"/> 괜히 | <input type="checkbox"/> 아끼다 | <input type="checkbox"/> 도자기 | <input type="checkbox"/> 깨뜨리다 | <input type="checkbox"/> 야단맞다 |
| <input type="checkbox"/> 뜨끔하다 | <input type="checkbox"/> -와/과 달리 | | | | |



이정호 씨의 가슴 뜨끔했던 일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고 이정호 씨가 가슴이 뜨끔했던 이유를 말해 보세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언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한 걸음 더

- ▶ 가슴이 찔리다(=)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친구의 말에 가슴이 찔렸다.
- ▶ 가슴이 내려앉다(✧) 깜짝 놀라다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화

귀신이 갑자기
내 발목을 잡았을
때 간이 콩알만
해졌어요.



민수 씨가 이렇게
겁쟁이인줄 정말
몰랐어요.

제니: 민수 씨, 오랜만에 놀이 공원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민수: 날씨도 좋고 꽃도 많이 펴서 사진 찍으면 참 예쁘겠어요.
 제니: 우리 신나는 놀이 기구도 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요.
 민수: 그래요. 제니 씨, 우리 저기 가 볼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제니: 아, '귀신의 집' 이네요. 민수 씨, 우리도 얼른 들어가 봐요.
 민수: 들어가 봤자 유치할 거예요. 그냥 다른 데로 가요.
 제니: 왜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요.

- 잠시 후 -

제니: 우와, 정말 재미있었어요. 근데 민수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민수: 좀 놀라서 그래요. 아까 귀신이 갑자기 내 발목을 잡았을 때 간이 콩알만
해졌어요. 진짜 기절할 뻔 했어요. 너무 긴장해서 걸어 다닐 힘도 없어요.
 제니: 민수 씨가 이렇게 겁쟁이인줄 정말 몰랐어요.

* 간이 콩알만 해지다: 겁이 나서 몹시 두려워지거나 무서워지다

활용예문

- ▶ 선생님이 갑자기 소리를 치자 간이 콩알만 해졌다.
- ▶ 번지점프를 하려는 순간 간이 콩알만 해지는 느낌이었다.
- ▶ 가: '가발'이라는 공포영화 봤어요?
 나: 네, 너무 무서워서 영화 보는 동안 간이 콩알만 해졌어요.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신나다 | <input type="checkbox"/> 놀이 기구 | <input type="checkbox"/> 귀신 | <input type="checkbox"/> 유치하다 | <input type="checkbox"/> 창백하다 | <input type="checkbox"/> 기절하다 |
| <input type="checkbox"/> 긴장하다 | <input type="checkbox"/> 겁쟁이 | <input type="checkbox"/> 번지점프 | <input type="checkbox"/> -아/어 봤자 | | |

함께해요



간이 콩알만 해지는 무서운 이야기를 읽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 미술실 -

어느 학교 미술실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학생들은 그 소문을 듣고 아무도 미술실에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미술 선생님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어느 날 선생님은 라디오와 먹을 것을 준비해서 미술실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다. 밤 12가 되자 선생님은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어느 새 밤은 지나가고 다음 날이 되었다.

아이들: 선생님, 미술실에서 귀신을 봤어요?

선생님: 얘들아, 세상에 귀신은 없어. 어제 미술실에서 거울을 보며 밤새도록 춤추며 놀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반장: 뭐라고요? 선생님, 미술실에는 거울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간이 콩알만 해지는 무서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한 걸음 더

▶ 간이 떨어지다(=)

천둥소리에 놀라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 간(이) 크다(☞)

무서움을 모르다

어두운 밤길을 어떻게 혼자서 걸어 왔니? 너 참 간도 크다.

▶ 간에 기별도 안 가다(☞)

먹은 것이 너무 적어 먹은 느낌이 없다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요.

41_ 가슴이 뜨끔하다 42_ 간이 콩알만 해지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가슴이 뜨끔하다 가슴이 내려앉다 간이 콩알만 해지다 간이 크다

1 가: 건강하시던 박 선생님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나: 저도 그 소식을 듣고 _____.

2 가: 언니 옷을 몰래 입고 나가다가 들킬 뻔했어요.

나: 저런, _____.

3 가: 우리 옆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 참 _____.

나: 왜요?

가: 글쎄, 그 집에 경찰이 사는 줄 몰랐나 봐요.

4 가: 저 마을에 귀신이 나오는 빈 집이 있대. 우리 한번 같이 가 볼래?

나: 난 안 갈래. 이야기만 들어도 _____.

5 가: 동생의 사고 소식에 _____.

나: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6 가: 어제 내가 형이 아끼던 시계를 잃어버렸어. 형이 그 시계를 찾을 때마다

_____.

나: 형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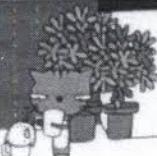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41_ 가슴이 뜨끔하다 42_ 간이 콩알만 해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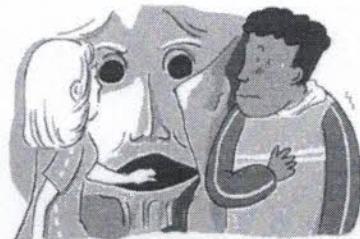


이야기해요

가슴이 뜨끔하다 / 간이 콩알만 해지다



다음 글을 읽고 상황에 맞는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나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보고 나서 마이클 씨와 함께 로마로 여행을 갔다. 영화 속 여자 주인공이 아이스크림을 먹던 유명한 스페인 광장에 가서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손을 넣으면 손이 잘린다고 하는 '진실의 입'도 구경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했던 것처럼 나도 '진실의 입'에 손을 넣어 보았다. 그 순간 괜히 가슴이 뜨끔하기는 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이 간 마이클 씨는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해서 '진실의 입'에 손을 넣지 않겠다고 했다. 보통 남자들보다 겁이 많은 마이클 씨는 혼자 집에 있을 때 바람 소리만 들어도 간이 콩알만 해진다고 했다. 결국 마이클 씨는 '진실의 입'에 손을 넣지 않았다.

사 라: 마이클 씨, 저게 유명한 '진실의 입'인가 봐요.

마이클: 우와, 정말이네요. 영화에서 봤던 그거네요.

사 라: 우리도 빨리 저기 가서 사진 찍어요. '진실의 입'에 손도 한번 넣어 보고요.

마이클: _____

사 라: _____

마이클: _____

사 라: _____

1. 새로운 학문에 눈뜨다

사도 세자가 영조에게 죽음을 당했던 영조 38년(1762)에 정약용은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저을 정도로 장난이 심했던 정약용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많았어요.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는 것은
멀고 가까운 거리가 같지 않음이로다.’

정약용이 일곱 살 때 지은 이 시를 보면 과학에 대한 관심과 놀라운 관찰력을 엿볼 수 있지요.



영조가 죽고 정조가 왕이 되면서 정약용의 아버지는 벼슬을 하여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온 정약용은 열다섯 살 때 이익이 지은 실학(實學)¹⁾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어요.

정약용은 새로운 학문인 실학을 접하고 나서 서학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서학은 천주교 사상과 청나라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이 전한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에요.

성리학은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심성에 대해 깊이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조선 시대 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지요.

2. 수원 화성과 암행어사

정약용은 스물여덟 살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及第)²⁾했어요. 그러나 벼슬길에 오르자마자 천주교인이 라고 지목되어 충청도로 귀양살이를 떠나야 했지요. 당시 조정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세력들은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반대하는 천주교를 나쁜 종교라고 여겨 믿지 못하도록 했어요. 만약 천주교를 믿다

가 잡히면 죽음을 당하거나 귀양을 가야 했지요. 다행히 정조의 특별한 도움으로 귀양 갔던 정약용은 10일 만에 풀려났어요.

얼마 후 정약용은 성을 쌓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써서 정조에게 올렸어요.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수원 화성은 적은 힘을 들여 튼튼하게 쌓을 수 있었지요. 수원 화성에는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거중기(舉重器)③를 만들어 사용하였던 거예요. 또 서양식 성 쌓기 방법을 받아들여 수원 화성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요.



수원 화성의 성곽수원 화성은 돌과 벽돌을 함께 써서 정교하게 쌓은 성이다. 세계 문화 유산 중 하나이다.



정약용의 지혜가 담긴 수원 화성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즈음 경기도 관찰사 서용보가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대가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들을 살피고 오라.”

정조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라면서 정약용을 암행어사로 임명해 경기도 지방에 내려보냈어요.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살피던 정약용은 가슴이 아팠어요. 가난에 지친 백성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허물어진 집에 찢어진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정약용은 이 때부터 백성들이 넉넉하게 사는 데 도움을 주는 학문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암행어사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정약용이 정조에게 아뢰었어요.

“전하, 관찰사 서용보가 옳지 못한 일을 한 것이 사실이옵니다.”

정조는 서용보를 불러 크게 꾸짖었어요. 그 뒤 앙심을 품은 서용보는 정약용을 미워해 틈만 보이면 해코지⁴⁾를 하려 들었어요.



3. 실학의 봉우리 정약용

1800년, 정약용을 감싸 주던 정조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조정에서는 그 동안 숨죽이고 있던 옛날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되었어요.

'요사스러움⁵⁾을 물리치고 올바름을 지킨다.'

그들은 이런 구실로 정조 때 서학과 천주교를 따르던 사람들을 몰아 내기 시작했어요. 천주교 집안이었던 정약용의 형제들도 이 일로 화를 당하게 되었어요. 둘째 형 정약전은 귀양살이를 가게 되고, 셋째 형 정약종은 감옥에서 매를 맞아 죽기까지 했어요. 정약용 역시 서글픈 귀양살이를 해야 했지요.

'언제 사약이 내려질지 모르는 삶이지만 학문을 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구나.'

정약용은 힘든 귀양살이 중에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정약용은 귀양살이를 하는 18년 동안 엄청난 양의 책을 썼어요.

※ 잠깐 퀴즈

천주교 사상과 선교사들이 전한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합쳐 부르는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 : 서학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은 <경세유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흠흠심서>, 관리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적은 <목민심서> 등 백성을 아끼는 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정약용은 1818년 귀양이 풀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헌종 2년(1836) 일흔다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요. 평생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자의 길을 간 정약용은 실학의 큰 봉우리로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어요.



다산 초당다산 정약용이 귀양살이를 하면서 조선 실학을 집대성한 곳이다.

<실학>

실학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개혁 사상으로,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를 튼튼히 하는 방법을 중시하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를 연구한 학자들을 실학자라고 하지요. 이 실학자들 중에서 선구자(先驅者)⁶⁾의 역할을 한 사람이 유형원이에요. 유형원은 농촌에 살면서 당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요. 또 박지원은 양반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소설을 쓰는 등 조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밖에 상공업의 발달과 화폐 사용을 주장하거나 신분 차별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실학자들도 있었어요.

4. 내용 정리

조선 중기를 넘어서면서 많은 학자들은 실학이 나라를 튼튼히 하고 백성을 잘살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과 같은 학자들은 실학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정약용은 과학적인 성 쌓기 방식으로 수원 화성을 지었고, 암행어사로 나가 가난한 백성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정조가 죽은 뒤, 천주교를 따르던 사람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귀양을 가야 했습니다. 정약용은 귀양살이를 하면서 <목민심서>, <흠흠심서> 등 백성을 위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약용과 실학 (천재 학습백과 초등 스토리텔링 한국사)

<한자>

* 다음 한자를 읽어보세요.

1. 住所를 정확하게 써주세요. ()
2. 일기장은 나의 가장 所重한 보물이다. ()
3. 미미와 나는 同姓 동본입니다. ()
4. 지리산은 우리나라 名山 중 하나입니다. ()
5. 市長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역사 > 천주교의 시련

1.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에게 ()는 두려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이었다.
2.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는 ()이다.
3. 인간 평등 사상과 ()를 거부하는 천주교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협적인 것이라 여겨 박해를 했다. *박해 :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

39_ 제 눈에 안경이다 40_ 콧대(가) 높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제 눈에 안경이다 색안경을 끼다 콧대가 높다 콧대를 꺾다

1 가: 오후에 옆 반과 농구 시합하는 게 어때?

나: 좋아. 이번에는 꼭 이겨서 _____.

2 가: _____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과 사귈 수 있을까?

나: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나 봐.

3 가: 예전에는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면 _____고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나: 맞아요.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4 가: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나: _____ 사람이라고도 해요.

5 가: 그 가게에는 예쁘고 가격도 싼 가방도 많은데 왜 이걸 샀어?

나: 난 이게 마음에 들었어.

가: _____.

6 가: 철수 씨가 유학을 다녀온 후부터 _____.

나: 그래요? 예전에는 찬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홍길동전

1. 작품 소개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 작가인 허균이 이 작품을 쓰게 된 데에는 서자 출신의 스승인 이달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 사회로 출생에 따라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제도가 있었다.

어머니가 천민인 서자들은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사회적으로 푸대접을 받았다. 당시의 그러한 사회 상황과 그 속에서 겪는 길동의 갈등에 주목하며 '홍길동전'을 읽어 보자.

아울러 길동의 활약을 통해 허균이 그려 내고자 한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 파악해 보자.

1) 핵심 정리

- 갈래 : 고전 소설, 영웅 소설, 한글 소설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 시간 - 조선 시대, 공간 - 한양, 합천
- 주제 : 신분 차별과 현실 세계를 비판
- 특징 :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2) 등장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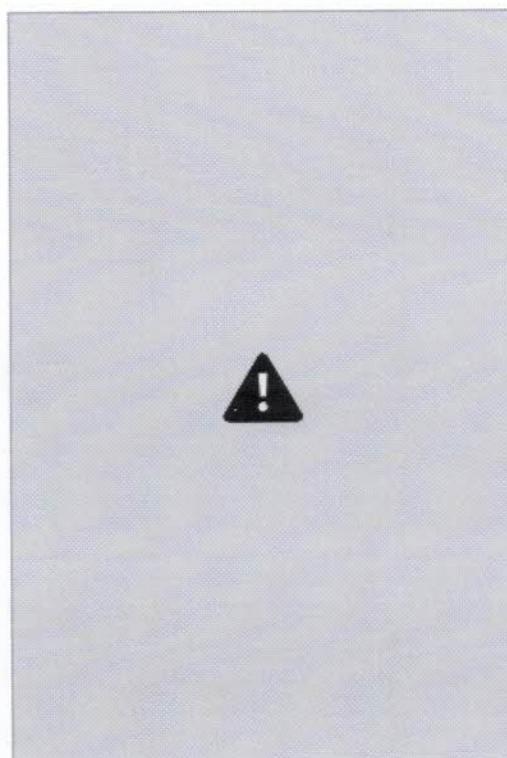
- **홍길동** : 양반 아버지와 노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총명하고 재주가 많지만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으며 자라요.
- **홍문** : 홍길동의 아버지로, 좌의정 벼슬까지 오른 양반이에요. 어질고 덕이 많지만 결단력이 부족해요. 작품 안에서는 홍승상, 홍대감 등으로 불려요.
- **춘섬** : 홍길동의 어머니로, 원래는 노비였지만 길동을 낳은 뒤 홍문의 척이 되어요.
- **곡산모** : 홍문의 또 다른 척으로 질투와 시기가 많아요. 길동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실패로 돌아가요.



3) 줄거리

서자로 태어나 온갖 차별을 받고 자란 길동

총 판서의 아들인 '총길동'은 서자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받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높은 학식과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갈수록 차별이 심해지고 자신을 해치려는 흥계까지 생기자 길동은 스스로 집을 떠난다.



총길동

길동은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어 의적이 되다.

길동은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알아보는 도적들의 청을 받아들여 도적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다. 길동은 그 무리의 이름을 '활빈당'이라 짓고, 부패한 벼슬아치들을 찾아내어 벌주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등 의로운 일을 계속하여 백성의 큰 지지를 받는다.



활빈당

길동이 병조판서가 되다.

반면 조정에서는 이런 길동을 잡으려고 하는데 길동은 그때마다 뛰어난 재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결국 임금은 길동이 원하는 대로 길동에게 병조 판서의 벼슬을 내린다.

길동은 활빈당을 이끌고 율도국으로 가다

그 후 길동은 활빈당 무리를 이끌고 조선을 떠나 율도국으로 건너가 그곳을 정벌하고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린다.

2. 감상 나누기

홍길동은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능력이 뛰어났지만 출세하기도 어려웠으니까요. 길동은 이런 사회 현실 때문에 깊은 갈등에 빠졌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나오는 결단을 내립니다.

홍길동의 영웅적 일대기를 통해 적서 차별제도와 탐관 오리들의 횡포를 비판한 '홍길동전'은 당시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답니다. 자신의 소망을 대신 실현해 준 길동의 행동에 대리 만족을 느꼈다고 볼 수 있겠죠.

흔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만을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등은 사람과 사회 문제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홍길동이 겪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사회적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3. 허균 작가와의 만남

허균(1569~1618)은 조선 광해군 때의 문인이에요. 허균의 집안은 당대 최고 집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스승이 신분에 따른 차별의 벽에 부딪혀 불우한 일생을 보내는 것을 보고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그 후 사회 제도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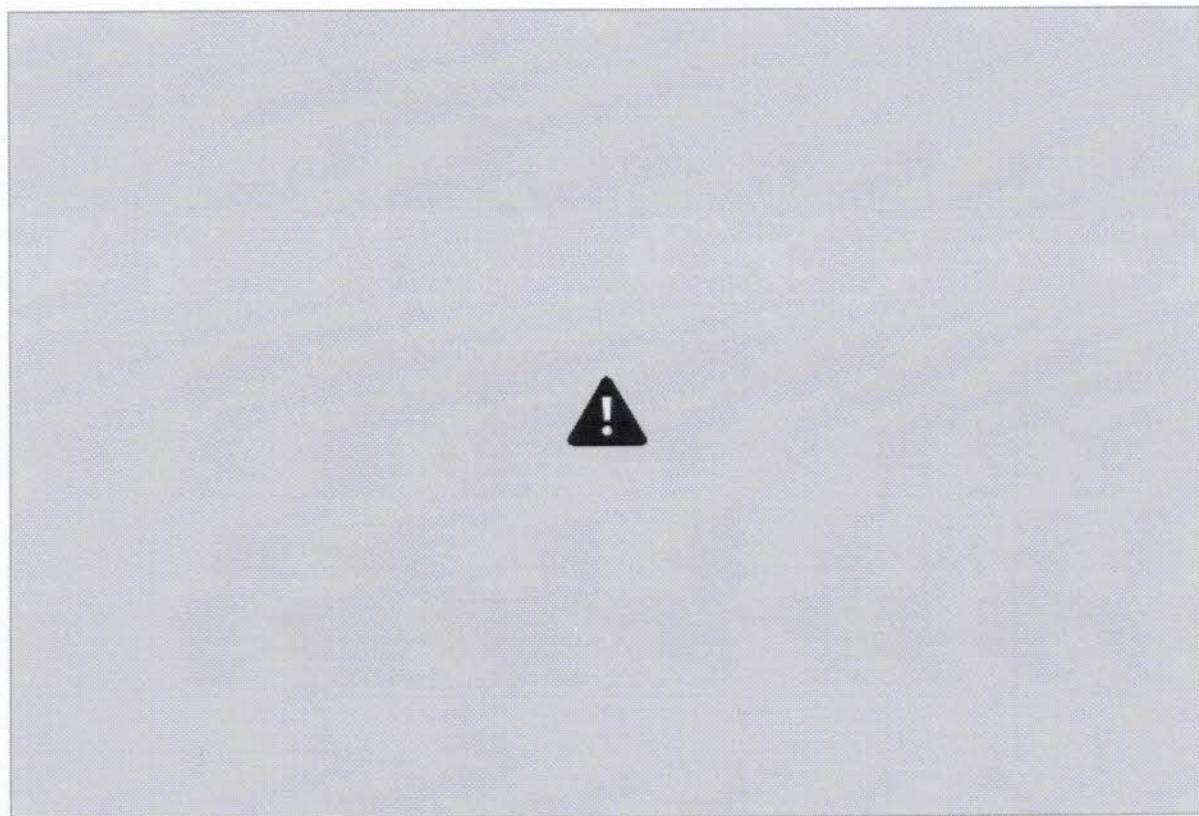
허균은 천하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백성뿐이며 출생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요. 『홍길동전』은 이런 허균의 바람을 대변해 주는 작품이랍니다.

4. 지금도 살아있는 흥길동

'흥길동전'의 주인공 흥길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흥길동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 많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함께 떠나 볼까요?

강원도 강릉시는 '흥길동전'을 지은 허균이 태어나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허균의 생가와 기념관, 허균의 시비 등이 있답니다. 강릉 경포호를 따라 흥길동 캐릭터 로드를 만들기도 했어요.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치실마을에는 흥길동 생가터를 복원한 곳이 있어요. 흥길동이 1440년에 장성군에서 태어난 실존 인물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흥길동 출생지를 복원한 것이지요. 생가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흥길동이 어려서 먹고 살았다는 길동샘도 있답니다.



흥길동전 첫 쪽

잠깐 퀴즈

글을 읽고 아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8세가 될 때까지 길동이 흥 판서를 부른 호칭은?

- ① 대감 ② 아버지 ③ 형 ④ 아빠

2. 길동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탐관오리를 벌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은?

- ① 활빈당 ② 활명당 ③ 활명수

3. '홍길동전'은 허균이 (허 균 이) 제도와 탐관오리들의 횡포를 비판한 소설이다.

4. 길동의 아버지 흥 판서는 양반이고, 어머니 춘섬은 종이므로 길동은 흥 판서의 (판서)이다.

5. 길동이 (흥 판서)를 응징하고 백성들을 돋지만 조정에서는 길동을 잡아들이려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홍길동전](#) (천재학습백과 미리보는 중학 문학)

Section II – Usage

Directions: This section consists of a number of incomplete statements, each of which has four suggested completions. Select the word or phrase that best completes the sentence structurally and logically and fill in the corresponding oval on the answer sheet.

30. 우리 아버지께서는 올해 53세로, 목수 일을 하십니다. 지난 때문에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신 것이 한이 _____ 인지 저만 보시면 ‘공부타령’만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아버지가 밉지 않습니다.
- a) 되셔서 b) 되서 c) 되어서 d) 되야서
31.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퇴근하면서 남아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겠습니다.’ 또는 ‘내일 _____.’하고 인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 a) 보겠습니다 b) 뵙겠습니다 c) 만납시다 d) 오세요
32. 내 성격은 좀 급한 편이다. 이 급한 성격 때문에 나는 부모님께 자주 _____ 들었다. 초등학교 때에는 숙제물을 빼놓고 학교에 가거나, 장남감을 사 달라고 폐를 써 어머니 속을 썩여 드렸다.
- a) 야단을 b) 혼찌검을 c) 꾸중을 d) 욕을
33.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시고 측우기, 해시계 등을 발명하여 백성들을 편히 살 수 있게 _____, 이순신 장군은 왜적의 침입을 막아 이 나라의 운명을 건지신 분이시다.
- a) 애쓰셨으며 b) 애쓰고 c) 애쓰며 d) 애쓰려고
34. 민수야, 이번 일에 대해서 꼭 어머님께 _____.
a) 말해라 b) 알려라 c) 여쭈어라 d) 가르쳐라
35. 할머니를 _____ 치과에 가서 치아를 뽑아 드렸다.
a) 데리고 b) 모시고 c) 가지고 d) 오라고
36. 피터야, 이 편지를 네 아버지께 갖다 _____.
a) 줘라 b) 받아라 c) 써라 d) 드려라

37. 큰 아버지께서는 작년에 _____ 다리가 또 아프신가 봅니다.
a) 다친 b) 다치신 c) 상한 d) 부딪친
38. 사장님께서는 _____ 과 회사가 가까워서 좋으시겠어요.
a) 댁 b) 저택 c) 집 d) 가정
39. 그는 그가 출생한 그 오막살이 집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는 동안, 늘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였고, 어머니께서 _____ 모든 일을 그의 조그마한 손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 _____.
a) 하는 - 주었다 b) 하면 - 드렸다
c) 하시는 - 드렸다 d) 하시는 - 일했다
40. 나는 어머니의 _____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서 급히 집으로 갔다.
a) 병원이 b) 병환이 c) 환자가 d) 병이
41. 토마스 선생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 _____.
a) 가르치신다 b) 가리키신다 c) 갈친다 d) 갈친다
42. 아버님, 갈비찜이 덜 물러서 _____ 불편하셨을 거예요.
a) 썹으시기 b) 썹기 c) 잡수시기 d) 먹기
43. 아버지를 할아버지께 말할 때에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_____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처럼 아버지에 대해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이고 표준 화법이다.
a) 밥 b) 진지 c) 수라 d) 먹거리
44. 어느 날 어머니는 무슨 불 일이 있어 시내까지 나를 데리고 _____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빵집에 들르신 일이 있었다.
a) 나가다가 b) 나서다가 c) 나오다가 d) 나가셨다가
45. 그릇에 국을 담아 시부모님께 드릴 때 맛을 보신 뒤에 간을 맞춰 _____ 게 아니라, 국을 끓이는 솔이나 냄비에서 미리 간을 맞춰야 한다.
a) 드리울 b) 드릴 c) 줄 d) 둘

46. 집안에서는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피는 것이 기본이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방이 춥지나 않은지,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_____”하고 인사말을 한다.
- a) 안녕히 주무셨어요? b) 안녕히 주무십시오
c) 잘 자라 d) 어서 오세요
47. 나는 할머니 댁에 심부름을 갔었다. 큰어머니께서 _____.
a) 안 계셨다 b) 없다 c) 없었다 d) 있었다
48. 어린 내가 혼자서 이모님 댁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아신 어머니는 나를 _____.
a) 꾸중한다 b) 꾸중하셨다 c) 걱정했다 d) 걱정한다
49. 정 선생님께서는 피아노 치시는 것을 _____.
a) 좋아하신다 b) 좋아한다 c) 미친다 d) 좋다한다
50.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모를 말할 때는 언제나 높여, 학교 선생님에게 아버지를 말할 때에도 ‘저희(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_____’와 같이 말하는 것이 바른 말이다.
a) 말했다 b) 말했습니다 c) 말씀하였습니다 d) 말씀하셨습니다
51. 이 교수님, 이 책은 제가 갖다 _____.
a) 드릴까? b) 줄래요. c) 드리겠습니다. d) 줄께.
52. 용주야, 할아버지께서 어디가 _____ 잘 여쭈어 보아라.
a) 편찮은가 b) 편찮으신가 c) 아픈가 d) 아프신가
53. 어머니께서는 새 의자를 사 주겠으니 낡은 의자는 내다 버리라고 _____.
a) 말한다 b) 말씀한다 c) 말씀하신다 d) 말하신다
54. 지난 여름방학 때 온 가족이 뉴욕에 계신 할머니를 _____ 갔었다
a) 보려 b) 만나려 c) 만나시려 d) 뵈려

55. 이 책은 음식 만드는 책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_____ 책인데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 a) 준 b) 주신 c) 드린 d) 주실

56. 아버지께서는 효도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한번도 입밖에 내신 일이 없는데, 나는 그 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효도가 무엇인가를 일찍부터 배웠다. 그러한 아버지께서는 자손의 효도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일찍 _____.

- a) 돌아가셨습니다 b) 떠나셨습니다
c) 죽었습니다 d) 세상을 베렸습니다

57. 어머니는 언제나 머리맡에 앉으셔서 “내 손은 약손이다.”를 외시면서 우리들의 아픈 배나 머리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 _____.

- a) 주었다 b) 드렸다 c) 주셨다 d) 준다

Section III - Reading Comprehension

Directions: This part consists of a number of incomplete statements, each having four suggested completions. select the most appropriate completion and fill in the corresponding oval on the answer sheet.

Questions 58-59

미국의 직장 여성들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센서스에 따르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정에 머물러 있는 쪽을 택하는 엄마들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의 직장 여성들은 1주일에 평균 80시간을 자녀들과 보내는 등 가족수도 많고 집안 일도 더 힘들었던 과거의 여성들보다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직장일과 가사를 계속 양립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

여성들이 가정을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근무 조건이 문제로, 일을 포기하는 일이 고임금을 받는 고학력 간부직 여성들 사이에서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다.

58.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attitude towards work are increasing numbers of women adopting?

- a) it is possible to maintain both a successful career and a family
- b) climbing up the career ladder should be a woman's top priority
- c) spending time with your family is much more important than maintaining your career
- d) you should maintain a career that matches your education level

59. How much time to increasing numbers of women spend with their children?

- a) 40 hours a week
- b) 40-48 hours a week
- c) 80 hours a week
- d) more than 80 hours a week

Questions 60-62.

새벽 두 시에 나는 바이올린 연습을 했다. 나는 음악학교에 다니면서 하루 종일 음악에 대해 공부한다. 학교 공부가 끝나면 나는 음식점에서 9시까지 일을 한다.

내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 피곤해서 금방 잠이 듈다.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 두 시경에 일어나서 연습을 한다. 우리 교수님은 적어도 하루에 4시간은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연습을 못 하면 나는 연주를 잘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 연습 때문에 내 이웃들이 수면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60. Which of the following people most likely wrote this passage?

- a) a music student
- b) a concert violinist
- c) a waitress
- d) a college student

61. What kind of schedule does the author most likely have?

- a) free and unstructured
- b) a few daily commitments, but ample free time
- c) each day holds new surprises, leading to very little free time
- d) extremely rigid, with no free time

62. What is the author most worried about?

- a) disturbing her neighbor's sleep
- b) finding time to practice 4 hours a day
- c) getting enough sleep
- d) maintaining a social life

Questions 63-65.

한국의 가족 및 친지들에게 성탄절에 맞춰 카드를 보내려면 늦어도 12월 16일까지 발송을 마쳐야 한다. 우정국은 최근 연말 우편물 폭주를 막기 위해 우편물 처리 일정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항공편으로 성탄절 이전까지 우편물이 배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카드는 12월 16일까지, 소포는 12월 11일까지 발송을 마쳐야 한다. 한편 육로와 해상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은 아시아의 경우 11월 6일까지 발송해야 한다.

우정국은 매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성탄절 이전까지 도착할 수 있는 우편물의 발송 시한을 발표하고 있다.

63. If you want to send a Christmas card to Korea, you must get it in the mail by:

- a) December 16
- b) December 11
- c) November 16
- d) November 6

64. If you want to send a Christmas package to Korea, you must get it in the mail by:

- a) December 16
- b) December 11
- c) November 16
- d) November 6

65. According to this passage, the post office can be characterized as:

- a) efficient in service
- b) inconsiderate of customer needs
- c) not able to deliver all Christmas cards by Christmas
- d) serving customers by communicating deadlines

Questions 66-69.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오전 7시 ~9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심장은 기운차게 뛰고 체온도 조금 높아지며 약간의 흥분 상태가 유지됩니다.

오전 9시 ~ 정오

인체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뇌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힘이 커지고 집중력, 암기력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정오에는 하루 중 시력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오후 1시 ~2시

인체의 에너지와 민첩함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점심 식사의 포만감 때문에 나른하지요. 인체는 둔하게 움직입니다.

오후 3시 ~4시

운동 선수들은 최대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학생들은 다시 암기력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오후 5시 ~7시 이 때는 혈압과 식욕이 높아진답니다.

오후 8시에서 11시

우리 몸의 뇌는 이제 재충전을 할 준비를 합니다. 신경이 둔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피로가 느껴지고 잠이 옵니다.

자정 ~ 새벽 3시

신체는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혈압, 심장 박동, 호르몬 분비량 등이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안정을 취합니다.

새벽 4시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아침까지 푹 자고 있습니다.

66. According to the passage, during which hours of the day is your eyesight the clearest?

- a) 7AM-9AM
- b) 9AM-noon
- c) 1PM-2PM
- d) 3PM-4PM

67. According to the passage, during which hours are athletes at their best?

- a) 7AM-9AM
- b) 9AM-noon
- c) 3PM-4Pm
- d) 8PM-11PM

68. According to the passage, during which hours is your body temperature lowest?

- a) 7AM-9AM
- b) 1PM-2PM
- c) midnight -3AM
- d) 4AM

69. According to the passage, during which hours does your body begin to get tired and sleepy?

- a) 7AM-9AM
- b) 1PM-2PM
- c) 3PM-4PM
- d) 8PM-11PM

Questions 70-72.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리 경관입니다. 저를 오늘 저녁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계실 때와 외출하셨을 때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계시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누구인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문에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그곳으로 들어다 보세요.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될 때는 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휴가로 집을 비울 때는 이웃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여 우편물이나 신문을 치우도록 부탁하세요. 만일 집 앞에 신문이나 우편물이 쌓여 있으면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전기불이 들어오고 아침이 되면 꺼지도록 해놓으세요. 물론 나가시기 전에 문과 창문은 모두 잘 잠겨있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70. Which of the following types of texts if the passage?

- a) essay
- b) speech transcript
- c) letter
- d) report

71. Who is giving this message?

- a) insurance company
- b) alarm company
- c) teacher
- d) police officer

72. What is the main subject of this message?

- a) home safety
- b) vacation trips
- c) neighbor relations
- d) mail and newspapers

Questions 73-74.

파산 / 형사법 / 이혼문제 / 음주운전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이혼, 각종 고소, 퇴거, 유언, 자동차 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고

만사 종합법률사무소

5454 Main Street #594 Los Angeles CA 90010

Tel: (213)555-8282 Fax: (213)555-8383

73. What kind of advertisement is in the passage above?

- a) counseling center
- b) chiropractor's office
- c) law firm
- d) insurance company

74. Services provided address each of the following areas *except*:

- a) rebuilding your credit
- b) bankruptcy
- c) divorce
- d) drunk driving

Questions 75-76.

옛날에 우리 집은 무척 가난 하였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병이 나도 약 한첩을 써 보지 못하고 자라났었다.

우리 형제들이 혹시 병으로 늙게 되면, 어머니는 약 대신에 언제나 그 머리맡에 앉으셔서는 “내 손은 약손이다.”를 외시면서 우리들의 아픈 배나 머리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셨던 것이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아픈 배나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았던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머니의 손을 약손이라고 불렀었다.

이제 연세가 여든을 넘으셔서 고목 껍질처럼 마르고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의사들이 가지지 못한 신비한 어떤 큰 힘이 하나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75.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best title for this passage?

- a) Growing Up Poor
- b) Healing Hands
- c) Sick Children
- d) Herbal medicine

76. What does this passage suggest about the nature of illness?

- a) Medicines are useless
- b) Medicines is necessary
- c) Psychological factors contribute in addition to medical factors
- d) The earlier you address an illness the more likely you will heal

Questions 77-79.

먹자고당

찌개전문

동태찌개 ----- \$ 8.95

해물찌개 ----- \$ 8.95

두부찌개 ----- \$ 6.95

김치찌개 ----- \$ 6.95

된장찌개 ----- \$ 6.95

은대구 조림 ----- \$ 11.95

갈치조림 ----- \$ 10.95

조기구이 ----- \$ 9.50

낙지 볶음 ----- \$ 11.50

해물 파전 ----- \$ 8.50

생선전 ----- \$ 7.50

호박전 ----- \$ 6.50

고추전 ----- \$ 8.50

77. What is this restaurant's specialty?

- a) soups
- b) barbecue beef
- c) grilled fish
- d) stews

78. This restaurant serves each of the following dishes except:

- a) kimchi fried rice
- b) soy bean paste stew
- c) grilled fish
- d) tofu stew

79. How many dishes on the menu use mixed seafood?

- a) 1
- b) 2
- c) 3
- d) 4

Questions 80-81.

형은 별걸 다 걱정한다는 듯이 내 손을 잡고 수영장 안쪽으로 걸어가며, 나를 바깥쪽으로 걷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나는 물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당황한 나는 허위적거리며 가까스로 수영장 가장자리로 나와서 몸을 가누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수영장의 깊이가 겨우 가슴께 정도였다. 다리만 뻗어도 닿을 깊이에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물을 두 주전자나 먹었던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형의 배신에 대한 분노로 물에 대한 공포심도 잊어버리고 수영캠프에서 가장 수영을 잘 하는 아이가 되었다. 그런 다음에야 나는 형에 대한 오해와 복수심도 저절로 풀렸다.

80. Who is most likely the author of this passage?

- a) a little boy
- b) a little girl
- c) a teenager
- d) an older brother

81. What attitude led the author to become the best swimmer at camp?

- a) commitment
- b) concentration
- c) competitiveness
- d) revenge